

### 11월의 기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준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2014년 해외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4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 DCEM 성회안내

2014년 11월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초청 강사로 “Rise for One” 성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순이, 김양호, 김정환, 나인규, 신한림, 오현주, 원소원, 이준호, 순복음정릉교회 조종숙 목사, 최인철, 함석숙, 010-2726-\*\*\*\*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오늘날 세상은 흥미한 세상입니다. 생존경쟁이 너무나 심하고 삶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마다 곤비합니다. 답답합니다. 슬프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상쾌하고 생명이 넘치게 바뀔 수 있을까요? 방언을 하면 마음속에 곤비한 마음이 사라지고 안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엘리아 같은 위대한 종도 갈멜산 전투 이후에 너무 마음이 곤비해지고 피곤해짐으로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렘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이제 충분하니 나의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곤비해지면 힘이 없게 됩니다.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고 상쾌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상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은 마음에 안식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 시원하고 안식이 오고 상쾌함이 다가오기 때문에 방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전면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 뒤에서 역사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통신앙생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드리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Novem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말레이시아 세계교회성장 콘퍼런스

‘21세기 교회를 세워라’ 주제로 36개국 1500여 목회자 참석  
조용기 목사 “환경 때문에 포기말라 꿈과 비전을 품어라”



CGI(국제교회성장연구원·Church Growth International)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한 세계교회성장 콘퍼런스가 ‘21세기 교회를 세워라(마 16:18-19)’는 주제로 지난달 10월 29~3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갈보리 컨벤션센터(CCC)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총재 조용기 목사의 세미나를 시작으로 3일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간 이번 행사에는 36개국 15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 외에도 프린스 구네라트남(말레이시아), 사무엘 로드리게스(미국) 리차드 로버츠(미국) 필 프랭글(호주) 휴워드 밀스 목사(가나) 마가렛 코트(호주) 유키오 후나츠(일본) 데이빗 섬렐(필리핀) 목사 등 CGI 이 사들이 교회성장에 대한 간증과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에서 모인 목회자들은 단연 조용기 목사의 세미나에 특별한 관심이 보여 CCC 오디토orium을 가득 메웠다.

모슬렘국가이면서도 힌두교 등 다종교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쿠알라룸푸르 최대 교회인 갈보리교회가 중심이 되어 CCC 전체를 개방해 각각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31일 오전 말레이시아 오순절교단 총회장 빈센트 레오 목사는 “조용기 목사는 자신이 교회성장을 배워 큰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분이시다. 말레이시아와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운동을 가르쳐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인사하며 강사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로 조용기 목사를 환영하며 존경의 예의를 갖췄다.

꿈과 비전을 강조한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막에서 나와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은 약속의 말씀인 성경이다. 우리가 더 이상 천막 안에서 기도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천막에서 나와

성경말씀을 통해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요셉처럼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도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면서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꿈을 바라보며, 절대긍정의 생각을 갖고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복, 꿈을 품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조용기 목사는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치유 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다”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부흥되는 꿈을 주시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선포했다. 참석자들은 조용기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내내 뜨거운 박수와 환호, 웃음과 감격 그리고 ‘아멘’을 외쳤다. 세미나에 참석자들은 목회 성공과 21세기 한국교회의 패러다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거쌌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중략]...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11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팅 빈 가슴은 마귀의 집입니다. 마귀는 텅빈 가슴속에 들어와서 자기 등지를 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빈집의 우환이라는 예화를 마태복음 12장 43-45절에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마귀가 사람의 몸에 자기 거처를 삼고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 물 없는 땅을 다니듯이 괴로워하다가 자기 쫓겨나온 그 사람에게 찾아가보니 예수를 믿다가 시간이 지나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으로 도로 돌아가는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차지하니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빈집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1.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시편 91편 2-4절에 보면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면 시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징인에게 영적으로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환상을 보게도 하시지만 이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을 모신 것이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려울 때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발휘하여 마음속에 생명이 있게 하는 것입

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나 상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꿈꿔야 합니다. 꿈꾸게 되면 믿음이 산출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말하게 되면 ‘네 말한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 2. 해결할 길이 없어 답답하여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두려움이 생겨나고 낙심이 엄습해 오고 고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엘리야 같이 위대한 신앙인도 낙심해서 로뎀나무 밑에 드러누워서 ‘이제 날 죽여 주십시오’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을 하더라도 포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하신 것처럼 포기 하지 않으면 거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이 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품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생각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상상하고, 믿고 말하면 두려움은 태양 빛 아래 사라지는 얼음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원수가 우리를 노리고 괴로움을 줄 때 원수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밥상 차리려고 또 원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기도하면 그 밥상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생애 속에 희망이 넘치게 되고, 만사가 행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다

가고 수많은 고통이 다가오거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 3. 핍박을 받아 설 곳이 없어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족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친구들도 떠나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핍박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거처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가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이기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도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 4.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린다’는 것은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죽을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요, 부활한 것은 나를 위해서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는 죽음과 부활이 다 나의 승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을 동안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격려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술로 그 말씀을 시인하므로 그 모든 것이 고백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 2014 세계교회성장 콘퍼런스 이모저모

## 우리교회가 설립한 CGI, 세계교회 성장구심점, 목회자들 조용기 목사 세미나 통해 꿈과 비전 세우

CGI(Church Growth International)는 교파를 초월한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성장했다. 1976년 설립되어 현재 184개국 1만 8000여 명의 목회자가 회원으로 있는 CGI는 매년 콘퍼런스를 열어 교회성장 노하우를 배우며 전하고 있다. 특히 2년에 한번은 한국에서 개최되는데 한국에서 진행되는 콘퍼런스는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행사보다 참석자들이 몇 배로 모이고 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여의도순복음시흥교회 권경환 목사, 여의도순복음안산교회 김유민 목사, 외무행사분과위원장 김종복 장로,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장 진중섭 장로, 4차원영성글로벌포럼 회장 김영도 장로, 부회장 허순범 장로 등이 함께 했다. 또한 순복음아세아총회 총회장 한치완 선교사 외에 염세열 오병철 김명준 선교사, 정덕우 평신도선교사가 참석했다.



10월 29일과 31일 이틀간 세미나를 인도했던 조용기 목사는 세미나 후 프린스 구네라트 남 목사와 참석자들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에서 온 목회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말레이시아 목회자와 성도들을 향해 축복하며 방



언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조용기 목사가 강단에서 내려가자, 참석자들은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박수로 감사를 전했다. 프린스 구네라트 남 목사는 “조용기 목사가 꿈과 비전을 제시해 말레이시아에 가장 큰 교회를 세우게 됐다”고 고백했다.

## 구로순복음교회, DCEM헌신예배” 드려 꿈, 말씀, 믿음이 올바른 인생길을 인도



창립 50주년을 맞은 구로순복음교회(담임 김봉준 목사)가 지난 10월 19일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를 초청해 특별한 금요철야예배를 드렸다. 제9회 어머니 기도회로 기간에 드려진 이번 금요철야예배에서 강사로 초청된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였다.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꿈, 말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의 올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철야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해외선교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구로순복음교회는 올해 회년을 맞아 개척교회, 교회건축, 낙도교회 지원 프로젝트를 세우며 북한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구로순복음교회는 김경철 전도사와 13명의 성도들이 모여 구로동 복음교회로 출발해 김경철 목사가 40년간 직무하다 김봉준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바통을 이어 받아 꾸준한 부흥을 이루고 있다.

##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 취임 예배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 목사 안수 받아



순복음동경교회는 12일 ‘목사 안수 및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개최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무 엄진용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순복음원당교회 고경환 목사의 대표기도, 순복음나고야교회 김유동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조용기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조용기 목사는 “큰 꿈이 있어야 한다. 꿈을 크게 가지고 입을 넓게 벌리고 믿고 시인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시가끼 목사님의 꿈과 리더십을 통해 순복음동경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2부 목사 임직식은 기하성 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맡아 임직자 호명과 서약, 안수에 이어 공포했다. 교단세계선교위원장 권경환 목사가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에 임직증서를 수여했다. 동시에 선교사 파송도 함께 했다. 3부 담임 목

사 취임식은 담임목사 소개에 이어 이영훈 총회장이 서약, 치리권 부여 및 공포를 했다. 조용기 목사가 담임목사 취임 증서를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에 전달했다. 권면을 전한 부총회장 이태근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 설교를 잘하는 목사, 사랑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축사를 전한 야마토갈보리채플 오오가와 츠쿠미치 목사는 “시가끼 목사님이 부흥의 열쇠를 가지고 부흥을 일으킬 줄 믿는다”며 “일본교회의 모델교회로서 멋있게 성장하기를 축복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순복음강남교회 최명우 목사, 순복음도봉교회 김용준 목사와 외무행사분과위원장 김종복 장로, 4차원영성글로벌포럼 회장 김영도 장로, 양만득 원로장로 등과 풀가스펠교단 산하 지방회에서 참석해 축하했다.